“AI 인프라, 성과로 이어져야”… 독자기술·산업혁신 ‘관건’

›› 1면 ‘정부서 GPU 확보… ’서 계속

AI 3강으로 가는 길

내년 AI 지원 예산 16.4조 편성
독자 AI모델 최종 2개팀 연내 선정
해외 빅테크 기술 의존도 축소 추진

국가AI전략위, 7개 과제 TF 가동
제조·의료 등 산업 전반 AX 확대
예산 연계·성과 검증 등 과제 산적


생성형 AI로 만든 정부의 AI 재정투자 확대와 GPU 인프라 확충을 상징하는 이미지.

재정투자도 크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정부 전체 AI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조3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AI 관련 사업도 지난해 338개에서 올해 738개로 늘었다.

증액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 지원 사업은 40개 부·처·청, 691개 사업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 소관이 9조4211억원으로 약 57%를 차지한다.

◆GPU ‘목표 5만장’ 중 2만1000장 확보… 최종 관문은 ‘독자 AI 모델’

핵심 사업에서도 진척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확보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까는 사업이다.

정부는 총 5만장 규모의 GPU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배 부총리가 지난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 B200 성능 환산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 확보할 약 3만5000장 가운데 2만1000장을 확보했다. 나머지 1만4000장은 내년 초까지 입고될 예정이며, 별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1만5000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GPU 26만장 공급계획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 CEO에서 사임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13일 엔비디아 측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배분해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이제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2차 단계평가에서 4개 정예팀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다. 정부는 이 중 최종 2개 팀을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기술을 개방해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국내 기업이 자체 AI 기술을 활용할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성과 구체화 위해 ‘프로젝트 중심’ 체계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필요

정부의 AI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제조·의료·국방·공공행정 등 산업과 공공부문 전반의 AI 전환(AX)으로 확대되고 있다.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국가AI전략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사이버 복원력 등 7개 국가 AI 핵심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정책 논의에 머물지 않고 TF별 목표와 성과물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 중심 체계로 운영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AI 정책이 추진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을 넘어 성과 창출 단계로 이동하면서, 실제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의 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규모 재정투자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곧바로 글로벌 AI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확보한 GPU가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구체화와 예산 편성 사이의 시차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TF의 성과물 제출 시한이 내년 3월 이후로 설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2027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부처 예산을 활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326개 정책권고의 이행 상황과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반도체주 급락이 기회?”… 개미들, ‘빚투·레버리지’ 베팅

엔비디아 급락에도 서학개미 순매수
나스닥·반도체 3배 레버리지 집중
삼전닉스 신용융자 잔액 7조 육박
증권가 목표주가 최대 30%대 하향

직장인 이모(35)씨는 올 상반기부터 반도체주를 조금씩 사들였다. 신용대출로 빌린 돈은 5000만원. 하지만 이달 급락장을 맞으며 평가손실이 1500만원이 넘는다. 이씨는 “추가 매수(물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스피가 7500선이 돼야 본전이 될 것 같은데, 내년 3월 대출 만기까지 어떻게든 버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혼외 관계와 상대방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불거지고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우려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의 2~3배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며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가 7조원에 육박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표현한 이미지.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3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3억3433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울트라프로QQQ(TQQQ)’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가 뒤를 이었다. 순매수 결제액은 각각 2억7164만달러, 2억3489만달러였다.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QLD)도 1억991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따라 글로벌 반도체주와 AI관련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젠슨 황과 중국인 사업가 앨리스 황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3.78% 하락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도체 사랑도 이어졌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내 신용융자 잔액의 약 3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은 3조6157억원, SK하이닉스는 3조3183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종목의 합산 금액은 6조934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액인 25조556억원의 27.7%에 달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보면 약 27.2%다.

신용융자 잔액이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의 약 28%가 두 종목에 몰렸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매수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반도체 ‘투 톱’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목표주가를 20~40%가량 낮춘 보고서도 쏟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5만원에서 44만원으로 32.3% 낮췄다. IBK투자증권과 iM증권도 각각 23.9%, 22.9% 내렸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줄줄이 하향됐다. iM증권은 35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34.3%, 한국투자증권은 47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31.9% 낮췄다. LS증권도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7.3% 내렸다.

개인투자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대체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0~2024년 국내 증권사 43곳의 투자 의견 보고서 73만5162건을 분석한 결과, ‘매수’가 78.17%로 가장 많았다. ‘적극 매수’는 0.66%, ‘보유’는 20.31%였다. 2015~2024년으로 좁히면 ‘매수’와 ‘적극 매수’의 합산 비율은 91.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도’는 0.14%에 그쳤고, ‘적극 매도’는 한 건도 없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유열, 2년 만에 사장 승진… 롯데, 경영체제 개편

미래성장실 확대해 중장기 전략 수립
롯데지주, 노준형 중심 의사결정 통합
마트·슈퍼 등 분리해 독립경영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사진)이 사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총괄한다. 롯데그룹은 기존 미래성장실을 경영전략실로 확대 개편해 신 사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롯데지주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일원화하고 주요 계열사의 사업부별 독립경영을 확대한다.

롯데그룹은 16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0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신 사장의 경영 보폭 확대다. 2024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신 사장은 2년 만에 사장단에 합류하면서 신설되는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을 맡게 됐다.

경영전략실은 기존 미래성장실의 신사업 및 글로벌 사업 추진 업무에 그룹 중장기 전략 수립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능을 더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미래 신사업 발굴을 넘어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 재편과 성장전략 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신 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도 계속 겸직한다. 그동안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 준공과 상업생산 준비, 미국 시라큐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물량 수주 등을 주도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원롯데’ 사업을 추진한 점도 승진 배경으로 꼽힌다.

롯데지주는 기존 고정욱·노준형 사장의 복수 전문경영인 체제를 노준형 대표이사 중심의 단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 대표가 기획·전략부터 재무·준법까지 지주 기능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그룹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실장에도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경영혁신실장에는 김영혁 전무, HR혁신실장에는 배교 전무, 재무혁신실장에는 김원재 전무가 각각 보임됐다. 경영개선실장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각각 김기순 전무와 이강훈 전무가 맡는다.

주요 계열사에서는 사업부별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차우철 대표가 겸직해 온 마트·슈퍼사업부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슈퍼사업부 대표에는 신주백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장이 전무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신 전무는 2023년 베트남 법인장으로 부임한 이후 신규 출점을 확대하며 현지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롯데쇼핑은 마트와 슈퍼의 사업 특성에 맞춘 독립경영을 통해 시장 대응력과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도 푸드사업부를 별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푸드사업부 대표에는 허진성 전무가 내정됐다. 허 전무는 롯데그룹 식품군HQ 경영기획부문장과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본부장 등을 거쳐 올해 푸드사업부장을 맡아왔다. 앞으로 육가공과 유제품, 가정간편식 등 푸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도 단행됐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사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이동한다.

/김서현 기자 seoh@